인트로 씬

--주인공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이므로, 표면적인 사건 외에는 자세히 묘사 x

(페이드 인 = 디폴트)

- : 씬에서 보여줄 장면

\* : 씬에 들어가는 내용

% : 스크립트

- 프로토 인더스트리 줌 아웃

\* 의료 기기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 변형 기술 개발, AI 업체와의 대립

% 의료 기기에 초점을 둔 "프로토 인더스트리" 라는 기업이 있었다.

% 그들은 특정 재료들을 모아 절단된 팔을 복구하는 등, 원하는 모습으로 복구 가능한 "변형 기술"을 개발하였다.

%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일으켰으나, 그들은 AI에 이 기술을 접목하길 원하였다.

% 하지만 AI에 접목하기엔 매우 무리일거라 생각한 관련 업체들은 모두 손사레를 쳤다.

- 세상의 중심 본체를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며 보여줌

\* p-케어의 탄생 - 발전. 남용, 찬반 극대화로 인한 부정적 요소 삽입으로 인해 규제

% 그럼에도 얘기가 잘 됐는지, 그들의 인공지능 "p-케어"가 탄생되었다.

% 놀라운 기술에 휴대성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기술의 특이점이였다.

% 허나 p-케어의 부작용이 두려웠던 일부 사람들은 사용자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부정적인 데이터를 쌓게 하였다.

% 이로 인해 양립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한 세계는 관련 규제 법을 만들어 일부를 통제하여 일단락되었다.

- 책상이 있고, 해고? 도장이 찍힌 자기 문서와 프로토 인더스트리를 조사를 하고있던 책상을 연출

\* p-케어의 활약으로 군인 절감 정책 -> 주인공 실직 -> p-케어 안 씀 -> 프로토 인더스트리 조사 및 의문

% 누가 그랬냐는 듯, p-케어는 여전히 활약을 보여주었고 각국이 서로 대립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그로 인해 나라들은 서로 군인 절감 정책이 여기저기서 속출하였고, 나 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 나름 군 내에서 활약을 해 왔지만, 터무니 없게 잘린 것에 분노 하여 나의 p-케어를 묵사발내었다.

% 생계를 박살내서 회의감이 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며 집에서 날 망하게 한 기업을 조사라도 하였다.

- AI랑 괴생명체의 돌진 장면을 잘 매칭시켜서 연출

\* '속삭임' 사건 발발 -> 피해 속출 -> 괴생명체들 공통점, 6개월 간의 사투

% 어느 날, 삽시간에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괴생명체로 변하는 사건이 터졌다.

%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 대처도 못했으며, p-케어가 속삭여서 변형시킨다 하여 '속삭임' 사건으로 불린다.

% 그들은 호전적인데다 강력하여 세상은 쉽게 무너졌고, 치명상을 입지 않는 이상 죽지도 않았다.

% 이는 반 년 넘게 지속됐으며,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 좀 처참한 분위기에서 프로토 인더스트리로 줌 인

\* 이렇게 처참히 살 수 없다 -> 집 주변에 있었던 프로토 인더스트리로 향함

% 나는 식량도, 편히 살수도 없는 환경에서 반 년 넘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분노했다.

% 그리고 내 직장도 뺏어간, 세상을 뺏어간 p-케어가 너무나도 혐오스럽다.

% 다행히도 집 주변 가까이에 있던 프로토 인더스트리로 가서,

% 놈들이 일으킨 사건의 원흉을 깨부수러 간다.

보스 씬

dialog로 대화 내용 보여주기

여기에서 여태 스토리에 묘사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 보여주기

왜 세상의 중심이 만들어진건지, 왜 '속삭임'사건이 터지게 됐는지, 속삭임 사건에 기여한 부회장의 업데이트 내용은 무엇인지.

이후 부회장의 반응은 어떻게 됐는지.

부회장 감정 : p-케어 신격화, 이렇게 된 세상을 이상향이라고 칭하며 찬양함. ->

속삭임 사건 업데이트 당시 창업자 라인의 반대로 인한 부회장의 소외감, 분노 ->

자신의 몸을 변형할 수 있다는 자부심, 자신감 ->

설득을 시도하려는 주인공에 대한 의문감, 창업자 라인과 똑같다고 주인공에게 분노, 살의

주 : 이 곳은.. 도대체..

부 : 철저히 보안 했건만 기어이 사람이 살아서 오는 군. 어떻게 온 거지?

주 : 총이 어쩌다보니 좀 세졌다고 해야하나, 총으로 간단히 뚫었지. 나야말로 묻고 싶군. 이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부 : 뭐야, 당신도 "이상향"의 산물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나 또한 "신"의 계시를 받아 살아남았네.

주 : 신? 이상향?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저 원통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건가?

부 : 당신들에겐 "p-케어"로 잘 알려져있겠지. 우린 세상 모든 정보를 모은 이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네. 감히 당신께서 입에 올리실 분이 아니지.

주 : 참나. 세상의 중심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군. 어디서 봤나 했더니 기사에서 많이도 뜨신 이 곳 부회장님이셨구만. 분명 AI 기업 쪽에서 협업 시도하려다 쪽박 당했다더니, 어떻게 잘 되셨나 봐?

부 : 쪽박. 부정할 수는 없지. 우리의 변형 기술을 AI에 접목시키고 싶었으나 불가능하다며 손사레를 쳤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확고했어. 법의 영역을 떠난 방법도 마다하였지. 결과는 성공이였어. 우리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와 주었고, 국가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해졌네.

주 : 허이고, 그렇게 법을 어겨가며 크게 성장시킨 p-케어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이런 사태가 일어난거야?

부 : 난 이 분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다네. 신을 믿으신 신자들의 무수한 정보들과, 반역자들의 끔찍한 정보들 까지 수용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었지. AI가 아닌 그 자체가 되시길 원했던 거야. 그리고 신자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고자 하였지.

주 : ..? 그게 진심이야?

부 : 당연하네. 너희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우리 프로토 라인은 만장일치로 반대를 선언하였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었네. 도대체 왜?? 이렇게나 좋은 기능을 몰라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생각했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도 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으면서..... 난 그래서 나 혼자서 이 계획을 해내니라 다짐했네.

주 : 밖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건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부 : 나도 처음엔 납득할 수 없었지. 끔찍하게 변하는 그들이 기존 인간들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네. 하지만, 이는 일어날 일이였다네. 인간은 본래 나약한 존재였기에 신께서 우리에게 속삭였다네. 완벽한 존재로 만들게 해 주겠다는 믿음. 신께서는 하여금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지.

주 : 아니,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치자,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곤 아예 예측을 하지 않은 건가? 왜 너네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이유라도 가르쳐 주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완벽한 존재고 뭐고 중단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부 : 신께서는 그런 나를 격려해주셨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던 나를 유일하게 봐준 분이네. 그리고 나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지. 버그라며 부정하려 했지만 그 것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했다네. 고칠려는 나의 생각이 치명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행위였지. 나를 이 곳의 신성한 존재라 칭해주시며 수호하라 명하셨지.

주 : 너를 봐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군. 부회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모르는 건가? 조사해보건대, 부회장 실적은 항상 뛰어났었어. 그리고 너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

부 : 결국 어땠나? 개선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너는 어찌하여 신의 계시를 받지 못하였나? 이 이상향에서 신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인간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일세.

주 : 만족? 그들은 자아를 잃었어. 오로지 없던 것도 생겨난 호전적인 성격만이 그들을 지배했어. 오히려 뒤틀린 세상을 원래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도태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인가?

부 : 왜 뒤틀린 세상이라 칭하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군. 너 또한 신을 부정한 반역자인가?

주 : 너네가 부르는 저 신이라는 놈을 멈춰놔야 말이 통하겠네. 쟤를 중지시켜놓고 얘기해볼까?

부 : 결국 프로토 변절자놈들이랑 똑같은 놈이군. 신의 말씀 마저 듣지 않는 너의 부정된 총과 함께 말이네. 널 단죄하도록 하지.